

圖 協 消 息

제 7 차 상무이사회 회의록

일 시 : 1970년 1월 8일 오후 3시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강주진, 이재철, 이춘희, 최재희, 최창균, 최근만, (위임) 박계홍, (가나다순)

- 안 건 : 1. 사무국 보고
 2. 사업진척 보고
 3. 197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4. 기타

성원보고

案 件 1. 사무국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하다.
(11월, 12월중)

가. 제회의 : 11월, 12월중 9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개최

나. 4차에 걸친 한국도서관학회 발기위원회 개최
다. 본회 보조예산 국회통과(12월 20일)

안 건 : 2. 사업진척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1. "구한국고문서해제목록" 인쇄 회부
2. "도월월보" 12월호까지 발행 배부완료
3. 배부합자로 140개 회원도서관에 배부
4. 국제회의 보고서 인쇄중

회 장(강주진) :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재희(이사) : 국제회의 보고서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하려니 자연 지연됩니다. 그리고 영문검토는 박계홍씨와 Walter씨가 검토하였습니다.

—인쇄중인 「국제회의 보고서」와 「구한국고문서해제목록」의 교정지를 갖고 장시간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

안 건 : 3. 197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박대권(총무부장) 1970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먼저 번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1970년도 총 예산은 1,810만원으로 문교부 보조 810만원과 자체 1,000만원으로 이루어 질 것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

회 장(강주진) 종래의 선정도서사업을 지양해서 도서관인 이외의 각분야의 전문인사를 모시고 알찬도서를 뽑아 신문지상에 발표하여 사서외의 일반인에게도 영향이 미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재철(이사) : 일본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선정된 도서는 일본도서관협회 추천이라는 것을 출판물에 적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각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기증받아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물 파악이 어려운 본 협회의 사정으로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그동안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한 3년후에는 효과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회 장(강주진) : 선정도서사업은 도서관협회 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 사업중 일반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질 수 있어 협회를 사회에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도서를 각 도서관에서 구입하면 출판사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차츰 책을 보내 올 줄 믿습니다.

이춘희(이사) :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미국도서관협회를 보더라도 협회 추천도서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우리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재철(이사) : 물론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선정도서 사업을 처음에 제가 맡아 해 보았으나만 현 제도와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같이 법적인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하다—

최재희(이사) : 선정도서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작하여 예산 재조정문제를 위해 다시 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회장님과 최구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찬성—

회 장(강주진) : 앞으로는 사업을 좀더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능동적인 사업으로 진척시키도록 합시다.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무 국 일 지

- 12월 19일 사무국장 국회 방문
제 3차 분류분과위원회 개최
- 20일 국회 방문(국장, 박부장)
- 22일 국회도서관 방문(국장, 박부장)
- 24일 문교부, 국회 방문(국장, 박부장)
- 29일 사무국장 경제기획원, 아시아 재단 방문
- 30일 임원 망년회

1970년

- 1월 5일 시무식
- 8일 미국대사관 방문(박부장)
제 7차 상무이사회 개최
- 9일 1969년도 심사분석, 정산서 실적보고서
문교부에 제출
- 10일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이화여대 도서관)

신 입 회 원

<단체회원>

부산배정중학교 도서관

<개인회원>

송창남 (장계중학교 도서관)
이영호 (마을문고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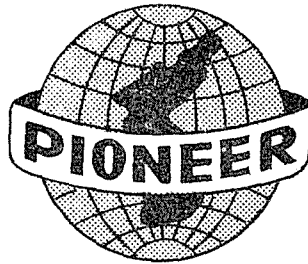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 Das Schweizer Buch le Liver Suisse ill Libro Svizzero. (A 19. 20. B. 5)
- Canadian Library (Vol. 26. No. 5)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 Boletin de Adquisiciones
-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 18. No. 9,10) Australian Library Association
- Information Bulletin (Vol. 28. No.43) Library of Congress
- 圖書館雜誌 (Vol. 64. No. 1.) 日本圖書館協會
- 親和(193) 日韓親和會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學術雜誌預約購讀에 관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の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맞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 3 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 3553 号
電話 (74) 4 8 5 5 · (75) 4 · 1 5 5

뉴 우 스

도협 정기총회개최(제16차)

—서울 교육회관 강당에서—

본 협회 제16차 정기총회가 오는 2월 13일 교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12일에는 동 소강당에서 평의원회가 개최되며, 이에 앞서 11일에는 정례이사회가 사무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총회의 중요 의제는 1969년도 사업실적보고,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 및 1970년도 예산안 사업계획 등의 인준과 아울러 제2회 도서관상(공적상, 근속상) 시상과 감사장 수여식이 아울러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도서관학회 창립

우리 나라의 도서관학이 도입 연구되기 시작한지 15, 6년이 지났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사상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긴 시기였고 또한 도서관 봉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의 봉사방법이 변화 발전하는데 바탕이 될 도서관학이 그 체계를 확립해 줄 순수한 도서관학 연구단체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긴 관계인사 및 4개대학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수차에 걸쳐 회합을 갖고 한국도서관학회의 창립을 서둘러 지난 1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이병도 박사와 본도협 강주진 회장, 미대사관 문정관 Carl F. Bartz씨등의 축사와 많은 내빈과 圖書館人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발기위원회에서 초안한 회칙을 심의결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 회 장 이 봉순(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장)
- 총무간사 이 춘희(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연구간사 이 한용(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장)
- 섭의간사 정 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장)
- 재무간사 박 대원(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
- 감 사 남 승면(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 감 사 손 정표(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특수근무수당 지급

—금년도 예산에 반영—

우리 도서관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서직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금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지급될 것 이라고 한다.

고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학술문화와 산업 및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지식을 가져야 비로서 봉사에 입할 수 있는 특수적인 동시에 1일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을 서고 판리나 책의 문지 등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아직까지 직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금번 국립도서관 이창세 관장께서 주야로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1970년도 예산심의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논의된 끝에 사서직의 특수성을 인식한 많은 국회의원들의 찬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에 특수근무수당이 지급토록 된 것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사서직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로서 금년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사직에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3급	6,000원
4급	4,500원
5급	3,500원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비 1,000만원 증액

우리 나라에 있어 도서관 사업이 아직 바람직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시설, 자료 운영, 인원 등 4대요소가 불비한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행히 지난 12월 20일 예산국회에서는 정부가 책정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비 1,500만원을 증인함으로써 1969년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획기적인 일이며, 보다 더 바람직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봉사기능을 기할수 있는 자료의 구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가서목작성의 기초작업이 될 한국관계고서목록, 고서선분해제 목록사업, 그리고 한미는문교류사업 등으로 1,000 여만원이 책정됨으로서 보다 더 활발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전 도협 사무국장 장인식 선생

인천시 시사편찬실 상임위원으로

본 협회 상무이사 및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전 인천시립도서관장 장인식 선생이 현재 인천시 시사편찬실 상임위원으로 활약중이라고 하는데 주소는 인천시 송의동 109번지라고 한다.

인 사 소 식

69년11월 송 진석 (전) 고흥군 점암국민학교
(현) 고흥군 송산국민학교
70년 1월 안 규 (전)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현) 서울고등학교

編 輯 後 記

豊饒한 社會建設,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70年代에 거는 期待를 表現한 Issue라 할 수 있다.

이것은 高度로 進歩한 現代科學에 대한 人間의 知的 能力이 豊富하게 結實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事實에 根據를 둔 觀念의인 理想일 수 없는 極히 現實의인 課題라는데 우리는 重壓과 難關을 意識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世代는 단 한번뿐인 宿命을 가지고 있으면서, 急速히 變化해 가는 우리들 주위의 環境 變化에 適應하고 모두 消化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限界性을 가지고 있는 우리(人間)에게는 너무나 過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뿐인가 우리들이 知識의 産室을 지키는 專門의인 知識人이란 立場에서 스스로 使命을 가져야 한다는데 70年代의 課題는 우리에게 더욱 「Uphill」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감당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意識하며 무엇을 追究하는가? 골똘히 생각하는 초점은 體驗을 더 할 수록 스스로 그에 포로가 되어서 我執에 執著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걸어온 길은 담담히 社會變化에 順應한 現實이면서 70年代란 來日을 待望하는 것은 아닌가?

해가 바뀌고 새 살림을 計劃하는 일, 具體화된 하나 하나의 問題들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그동안 一線에서 手酷하는 會員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議論하는 總會를 갖게 된다.

해마다 갖는 總會다.

우리는 年輪를 더 할 때마다 스스로를 反省하고 보다 나은 來日을 設計한다. 70年代는 觀念의인 理想의 追求만이 아니라 忍耐와 勇氣로서 기필코 後悔 없는 이땅에 圖書館文化의 開花期를 누리자.

× × ×

이번 號에 실린 金斗弘 先生의 “學校圖書館 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은 學校圖書館이 教育目的에 기여하는 價値와 그 根本的인 哲學的 理解, 그리고 우리 나라의 學校圖書館이 우리가 期待하는 것 만큼 發達하지 못한 原因이 學校圖書館行政의 貧困에서 基因한 것으로 믿고 現在의 樣相을 살펴 그 原因을 考察한 것으로서 정말 알찬 論文이라 하겠다.

全榮朝 先生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의 大衆化 方案”은 지난 圖書館大會(公共)가 거둔 훌륭한 열매로서 實務奉仕에 좋은 參考가 될 줄로 믿는다. 金宗會 先生의 “우리 나라 古醫學書籍에 관한 考察” 또한 바람직한 수확으로 金先生이 오랜동안 醫學圖書館界에 奉職하는 동안 틈틈이 調査 研究하였던 것으로 機會있는 한 하나 하나의 貴重本이 解題 紹介될 것으로 믿고, 그 勞苦에 感謝드린다.

특히 金斗弘 先生, 全榮朝 先生, 此外 投稿해 주신 여러 분께 探甚한 感謝를 드린다. (仁)

× × ×

1970年 1月 25日 印刷
1970年 1月 31日 發行 <頒價80>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 圖書館協會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六(國立中央圖書館構內)

<月刊> 도 월 협 보
第11卷 第2號

電話 (22) 4864·5613
振替 書 庫 3753
私書函 서울國際 2041
(文化公報部 登錄番號 라-29)

發行人 姜 周 鎮
編輯人 崔 根 滿

印刷人 三省印刷株式會社